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내일 D-100

광주시 '지구촌 수영축제' 완벽 준비

BTS·모모랜드·홍진영 등
슈퍼 콘서트 출연진 확정
경기장·선수촌 마무리 공사
5월 중 모두 준공될 듯

올 여름 광주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 수영 축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3일로 'D-100'을 맞는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선수촌을 비롯한 경기장 시설 공사는 순조롭고, '방탄소년단'의 공연으로 주목을 받은 수영선수권대회 슈퍼 콘서트의 출연진도 최종 확정됐다.

1일 광주시는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사용하게 되는 선수촌은 지난 3월 말에 완공해 현재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오는 7월 2일 언론 공개 이후 7월 5일 개촌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장 시설도 마무리 단계다. 경영·다이빙 경기장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관람석을 3393석에서 1만648석으로 늘리고 각종 운영시설도 두 배 이상 확충해 주 경기장으로 활용한다. 수구 경기장이 열리는 남부대 축구장은 임시수조 2개와 4340석의 관람석을 설치하고 있다.

또 아티스틱수영 경기장이 열리는 염주종합체육관은 임시수조 2개를 설치하고 운영실과 관람석을 5360석으로 개보수 중이다. 하이다이빙 경기장인 조선훈 축구장은 임시수조 1개와 관람석 3027석을 마련 중이다. '수영 마라톤'인 오픈워터수영은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 2075석 규모의 관람석과 폰툰(출발대)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번 달에 착공한다.

광주시는 경기시설물 공사가 차질 없이



광주세계수영대회를 100여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대회 홍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에서 서대석 광주시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제작식이 열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추진될 수 있도록 4월부터는 일일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5월 중에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차 입장권 오픈 행사 1분여 만에 매진됐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슈퍼 콘서트'의 출연진도 확정됐다. 수영 대회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슈퍼콘서트는 국내 2만 명, 외국인 1만 명이 관람할 예정이다. 슈퍼콘서트를 계기로 외국인 관람객 대부분이 광주에서 숙박과 관광 등을

겸할 것으로 보여 관광효과와 수영대회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슈퍼콘서트에는 방탄소년단, 모모랜드, 아이즈 원, 엔플라잉, 네이처, 트와이스를 비롯해 광주 출신 홍진영, 그룹 더 보이스와 TXT, 체리 블렛이 무대에 오른다. 또 2차 무료티켓은 오는 11일 오후 5시 '11번가'에서 1차 무료티켓 오픈과 같은 방법으로 오픈될 예정이며, 앞으로 4월 중순께 추가로 한번 더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

장은 "이번 슈퍼콘서트를 계기로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수영 대회 홍보에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국적인 붐 조성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직위는 "오는 24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유니폼 패션쇼와 대회 메달을 공개하는 행사가 펼쳐지며 이후 6월까지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나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시비 투입

공동발전기금 갈등 풀고

광주·전남 상생 물꼬 기대

광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시비를 투입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전남도, 나주시

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가 광주·전남 상생이 우선이라는 대외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가시화되는 것은 물론 막혔던 광주·전남 상생이 다시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혁신센터'는 빛가람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인프라 시설과 창업지원 공간을 융합한 센터로, 10개 혁신도시 내에 각각

건립될 계획이다.

빛가람혁신도시에 건립될 '복합혁신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다. 이곳에는 창업지원센터, 수명장, 혁신도시 발전재단, 육아지원시설 등이 들어서 입주 이전 공공기관 직원 등의 정주여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으로 복합혁신센터 건립 총 사업비 490억원 가운데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

은 국비 190억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한 양사·도가 상생협력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용섭 시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면서 "또한, 혁신도시 전반을 컨트롤하고 복합혁신센터를 운영하게 될 '발전재단' 설립도 적극 추진하는 등 양사·도 간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알립니다

나에게 주는 101가지 선물



4~7일 서울 양재 aT센터 전시장



광주일보는 '나에게 주는 101가지 선물'을 주제로 '힐링 페어 2019 (Healing Fair 2019)'를 4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전시장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힐링 건강문화를 선도하는 (사)힐링산업협회, 국내 대표적 MICE 기획사인 (주)이즈월드

힐링 뷰티, 지자체 특별관 등의 주제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라도관'은 천연 문화유산과 탁월한 자연경관, 맛깔스런 음식, 친환경 농산물로 대한민국 힐링 문화의 요람인 광주·전남을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와 힐링 관련 상품 생산업체 및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힐링페어 2019 (HEALING FAIR 2019)
- 일 자 : 2019년 4월 4일(목)~7일(일) / 총 4일간
- 장 소 : 서울 양재 aT센터 전관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주 최 : (주)광주일보사, (사)힐링산업협회
- 문 의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062-220-0555

光州日報社

전남도·나주시 한전공대 설립 재정 지원 규모 곧 윤곽

전남도나 나주시 등이 한전 공과대학 설립 과정에서 부담할 재정 지원 규모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지 원단은 2일부터 열리는 제 33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전공대 설립 운영에 따른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는 계획을 한전·나주시 등과 조율 중이다.

전남도는 대학 운영비 지원 규모와 조건, 부지제공 방식 등에 대한 한전·나주시와의 공과대가 형성되면 관련 동의안을 도의회에 각각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날 말까지 한전과 이행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맞춰

'지원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다음 임시회는 5월로 예정된 상태다.

한전공대 설립된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 규모는 조만간 전남도의회에 동의안이 상정되면 투명하게 공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람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 광주 전시점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 광주광역시 남구 영동대로 603(연일동 20 (소문동)) |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 광주광역시 남구 임팔로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1톤), 복합회합용도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